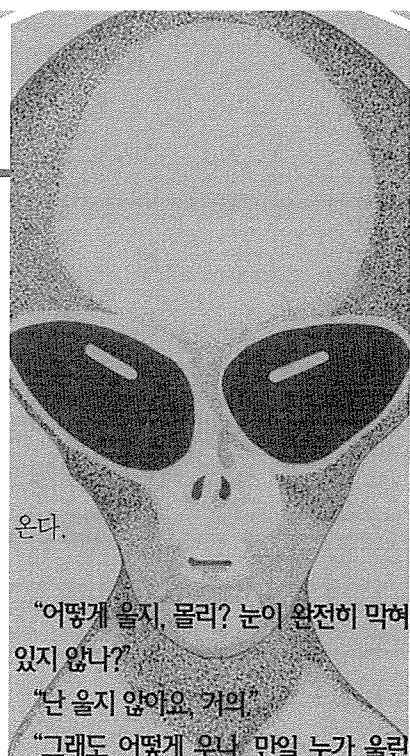


인간진화의 미래

# 머리만 큰 외계인 모습될지도 ...



온다.

“어떻게 올지, 몰리? 눈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나?”

“난 올지 않아요, 거의.”

“그래도 어떻게 우냐, 만일 누가 올린다면 말이야?”

“침을 뱉죠. 눈물샘에서 관이 나와 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일까? 눈부신 문명을 건설하여 우주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전지구적인 핵전쟁을 일으켜 자멸할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그런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진화 양상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주제는 예로부터 많은 SF들이 다루어 온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전망은 인간의 미래상을 일종의 초능력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작가 디어도어 스테전(T. Sturgeon)은 장편소설 「인간을 넘어서(1953)」에서 '계슈탈트'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묘사했다. 인간 개개인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 새로운 하나의 자아를 이룬다는 내용이다. 한 계슈탈트에 속하는 사람들은 두뇌 역할을 하는 자,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 식으로 제각기 나뉘어져 있어서, 겉보기에는 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인간형태를 이루고 있다. 개개인이 육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정신적, 영적 통합을 통해 집단자아라는 더 고차원적인 인간으로 승화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제재이다.

또한 아서 클라크(A. C. Clarke)의 장편소설 「유년기의 끝(1953)」 역시 인간의 질적 진화를 장대한 스케일로 묘사한 걸작이다. 어느 시기에서부터

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초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들은 부모의 존재도 무시하며 심지어 자신의 신체조차 돌보지 않는다.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기괴한 행동만 거듭한다. 나중에 부모들은 다른 외계인으로부터 인류가 새로운 진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첫 세대가 탄생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 작품에서도 신인류는 육체의 독립적 개체성을 초월하여 집단의 식으로 승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전망의 공통점은 인간에게 있어서 '타고난' 신체의 비중이 물리적 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다. 물론 정신과 육체가 상호작용하는 삶이라는 대전제는 크게 변화가 없겠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은 육체의 한계를 크게 넓혀주고 그에 따라 정신은 점점 더 자유분방한 새로움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먼 미래의 어느 날엔가는 육체의 속박을 훌훌 털어버리고 영원한 영적 실존의 길을 택할 지도 모를 일이다.

## 육체를 스스로 조작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에는 인간 스스로가 육체를 조작한다는 내용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처음 발표된 뒤 이른바 '사이버펑크'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윌리엄 깁슨(W. Gibson)의 소설 「뉴로맨서(1985)」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

물리는 외과수술을 통해 특수렌즈를 눈 주변의 피부와 봉합해버린 여성이다. 또한 그는 열 손가락의 손톱 밑에 칼날을 이식해 넣었다. 이처럼 이 작품에 등장하는 21세기는 발달된 생리학 과학 생체공학의 힘으로 인간의 신체관이 혁명적으로 변화함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그에 따라 정서적인 면도 크게 달라질 거라는 예측은 위의 장면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사이버펑크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첨단기술에 익숙한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낳은 발상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영화 '매트릭스'이다. 이 영화에서 인간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게 묘사된다. 다름아닌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체전지'의 역할이다. 거대 산업문명에서 부속품화, 파편화되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 대한 통렬한 풍자가 아닐 수 없다.

이쯤되면 '진화'가 아니라 '퇴화'라

##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육체활동의 필요성이 계속 줄어들어 체형은 커질지라도  
체력은 약해져 머리만 크고 팔다리는 가느다란 외계인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

고 해야 정확하겠지만, 아무튼 인간의 미래상을 암울하게 본 작가는 예전부터 있었다. 최근에 영화로도 소개된 「타임머신」이 대표적인 예이다.

H.G. 웰즈가 1895년에 처음 발표하는 소설은 80만년 뒤의 미래사회를 그리고 있다. 여기엔 엘로이와 몰록이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인간이 등장하는데, 둘 다 악몽처럼 극단적으로 퇴화된 모습이다. 엘로이는 외모는 곱상하지만 지적 호기심이나 진취성 등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저 무위도식하는 밥벌레같은 존재이고, 반면에 몹시 추한 외모를 지닌 몰록은 지하에 숨어서 생산활동에만 종사한다. 이들 역시 사회적 윤리의식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생존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짐승'에 가깝다.

인간의 퇴화를 이처럼 극단적으로 묘사한 것은 집필 당시 사회주의 사상 가였던 웰즈가 당대의 인류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구도로 파악하여 전망한 때문이지만, 인간의 퇴화라는 주제 그 자체로 놓고 보아도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들 스스로의 육체적, 정신적 나태함을 부추겨 결국은 퇴화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섬뜩한 암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영** 국의 철학자 올라프 스태플든 (Olaf Stapledon)이 1930년에

발표한 「최후의 인간, 최초의 인간」은 좀 색다른 입장을 취했다. 인류의 미래를 매우 장대한 스케일로 형상화한 이 걸작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진화 과정을 더듬는 형식으로 서술되었지만, 도중에 때때로 퇴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산을 오르다가 이따금 뒤로 미끄러지듯이, 또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그 과정에서 날개가 돌아나기도 하고,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에서 환경에 맞춰 진화, 적응하기도 한다.

### 야수로 퇴화할 수도

사실 인간의 미래사를 긴 안목으로 전망할 때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비단 진화나 퇴화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때에도 상당히 유념할만한 입장이다. 문명의 발전 과정이란 늘 일관되게 상승곡선만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므로, 때때로 후퇴나 퇴화가 일어나더라도 조금하게 일회일비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은 '길고 넓은 안목'이라는 SF적인 미덕과는 거리가 멀다.

패디 차예프스키(P. Chayefsky)의 「변신 상태(1978)」는 현대인들 각자에게 잠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퇴화된 원형체'를 묘사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작품의 주인공 과학자는 모든 감각을 차단시킨 밀폐형 탱크 안에서

무의식 상태에 빠져드는 실험을 시도 하는데,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인체 내부에 간직되어 있던 이득한 과거의 DNA정보가 발현되어 반인반수의 원숭이로 변해버린다. 과학자는 자신의 경험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실험을 계속하여, 마침내는 원숭이 인간보다 더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올라가 형체조차 불분명한 살덩어리로 변신한다.

1980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작품은 로버트 스티븐슨의 고전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어떤 약물 등의 조작을 통해 인간이 즉각적으로 야수로 퇴화한다는 설정은 그 자체로서 인간 본성에 대한 훌륭한 은유기법이기도 하다.

**SF** 가 아닌 현실에서의 인간은 진화보다는 퇴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육체 활동의 필요성이 계속 줄어들면, 체형은 커질지라도 체력은 약해질 것이다. 지적 활동이 많아지는 대신 팔다리를 쓰는 일이 자꾸 줄어들다면, SF에 흔히 등장하는 머리만 크고 팔다리는 가느다란 외계인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 **㉯**

朴相俊 (SF/과학해설가)